

아주대의료원소식

2001

10

등록번호 제 81호 / 발행일 2001. 10. 1 / 발행인 겸 편집인 徐廷浩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442-721) 전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포커스
아주의대 연구진 베타병 영문 단행본
세계적 출판사 Springer에서 발간
- 3 선인재 칼럼
세계화의 기본
- 4 의학 리포트 I
자궁경부암,
항암화학방사선치료 효과 탁월
- 5 의학 리포트 II
역류성식도염의 발병원인,
위산보다 산화적 스트레스로 밝혀져
- 6 진료교실
저혈압 과연 위험한가?
- 7 인체탐험 눈 이야기
- 12 잊을 수 없는 환자
당신을 너무 너무 사랑해
- 13 AMC NEWS
- 18 개원 7주년 기념행사 화보
- 22 건강 Q&A 두통
- 23 잘못된 건강상식
방사선촬영을 하면 기형아를 출산한다?
- 24 나의 연구 나의 테마
간암치료 방해하는 NF- κ B의 활성화 억제
- 25 의료장비 소개
광투시 전통형 정맥류 제거술
- 26 우리 병원 어떨습니까
이제 몸이 아프면 수원으로 달려갑니다
- 27 아주대병원 100% 활용하기
외국인진료안내
- 28 응급처치, 이럴면 이렇게
가을철에 발생하는 감염질환
- 29 특수클리닉 소개 의안클리닉
- 30 특수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청명한 가을 하늘

우리에게 있어 가을은 풍요로움의 계절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쉼터같은 계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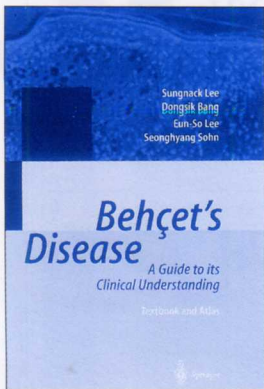
이런 풍성한 계절에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개원 7주년 기념 행사와 더불어 다채로운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건강공개강좌, 무료고막검사, 각종 진료관련 워크숍과 세미나, 환우회, 자원봉사자 모임 등의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와 야유회, 의과 대학생들이 한여름 더위를 이기면서 준비한 정기공연 등 지난 시간의 땀 흘린 결실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7년 동안의 결실들을 되새기면서 환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도약을 다짐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아주의대 연구진 베체트병 영문 단행본 세계적 출판사 Springer에서 발간

「Behçet's Disease :
A Guide to its Clinical Understanding Textbook and Atlas」
- 피부과학교실 이성낙 교수외 3인 공저

아

주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성낙 교수, 이은소 교수, 의과학연구소 세포생물학연구실 손성향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방동식 교수가 공동 집필과 편집을 맡아 추진해 온 베체트병관련 단행본 「Behçet's Disease : A Guide to its Clinical Understanding Textbook and Atlas」가 세계적 출판사인 Springer사에 의해 마침내 발간되어 세계 각국 관련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아주대학교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베체트병 특수클리닉에 등록된 약 5,500명의 환자들에게서 18년 동안의 연구기간을 투자하여 수집한 자료들과 다양한 임상사진을 한데 엮어서 펴낸 책인만큼 내용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베체트병을 처음으로 정의한 베체트 박사에 관한 내용, 베체트병의 역학, 유전, 병인, 다양한 임상양상(구강 및 외음부 궤양, 눈, 피부, 소화기, 관절, 중추신경, 심혈관계 등), 진단(임상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 내용 포함), 치료 및 예후의 최신 자료들을 총 210페이지에 모두 담고 있다. 아울러 48명의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자료가 공저 형태로 심도 깊게 발표되고 있으며, 147개의 실제로 겪었던 환자들의 임상사진과 121개의 도표를 수록하여 독자로 하여금 아주 쉽게 베체트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터어키 의사 베체트가 구강 궤양, 안질환, 외음부 궤양, 피부병변을 주장하는 소위 「베체트병」이 명명된지도 어언 60여년이 지났다. 베체트병은 주로 동양과 지중해 연안국에 호발하는 질환으로 우리 나라에도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은 모든 기관과 장기에 병변을 일으키므로 의사이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병에 대한 상세한 임상적 연구를 통한 책자 발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 병을 깊게 이해하려는 의학도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뜻에서 이 책의 발간은 세계적인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책의 저자들은 이미 1994년, 1998년 2회에 걸쳐 「Reference Index Related to Behçet's Disease」를 발간하여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배포하여 문헌검색에 도움을 주었고, 1998년에는 「베체트병의 임상적 이해」라는 우리말 단행본을 발간하여 국내 환자 및 연구자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내·외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이 방면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쌓고 있다.

